

# 技術用語의 國語化論

李 東 翰

충북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 요 약

기술개발의 근원인 사고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국가의 지적영역을 확보하기위해 모든 기술적 개념을 어휘 수준, 구문 수준, 의미 수준에서 모국어를 확충 발전시키는 것이 기술 용어의 국어화 과제이다.

### 1. 技術의 根源으로서의 思考

인간의 개념적 구성력은 창조력을 의미하며, 그런 노력에 의해 기술이 진보된다. 창조력이란 인간의 특성으로서 갖는 思考, 그것도 심층적인 사고의 세계를 통해 얻어진다 [6]. 때문에 기술이란 그것을 개발한 사람, 또는 집단의 독창적인 산물이다. 기술이란 일반적으로 학습이나 知的훈련을 통해 그 기반이 다져진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인간의 思考 에너지에 의해 도출됨으로 思考는 技術의 根源이 된다고 하겠다[5].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기술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情報의 논리적 학습을 통해 얼마든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은 지금까지 누구도 생각해낸 일이 없는 새로운 것이어야 기술로서 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은 학습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기술은 개인의 지속적인 신념이 에너지化되어 거기서 부터 솟아나오는 창조인 것인바, 집중적이고도 효과적인 사고 활동이 요구되며, 그런 활동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사고 활동이 활발해지면 언어 활동이 활발해 진다. 그러므로, 사고와 언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또 기술은 사고 활동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기술과 언어도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는다. 기술이 독창적이면 대응하는 언어도 독창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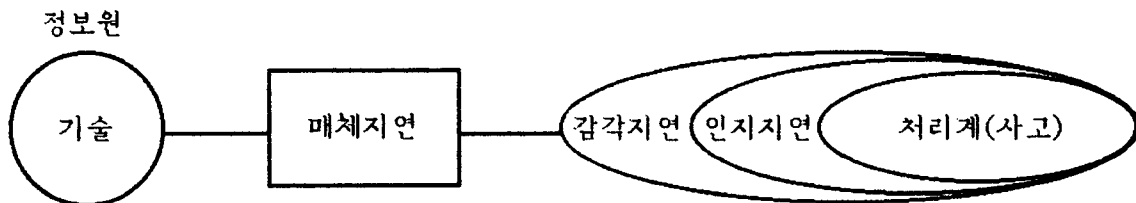
사고가 언어를 지배하고 언어가 기술을 지배한다. 언어가 없으면 사고를 현실화 시

킬 수 없으며 기술이 없으면 언어의 구현도 없다. 그러므로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언어의 중요성과 사고의 창조력을 외면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모국어를 떠나서 사고하기는 어렵다[6]. 요즈음 폭발적인 정보량을 소화할 목적하에 교육과 학습 훈련을 강화하는 탓으로, 상대적으로 언어와 사고의 역할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概念의 表象과 情報 傳達

기술이 창조되면 우리는 그 개념을 언어로서 表象化한다. 이 때 第三者는 언어를 통해 기술적 개념을 認知할 수 있다. 기술적 개념을 인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기술을 창조한 개인의 독자적인 사고의 흐름을 따라 가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언어는 界面 기능을 갖는 도구로서, 언어가 불충분하면 효과적인 개념 파악이 어렵다.

기술적 개념은 언어로서 표상되며 정보로서 全社會에 보편화 된다. 정보의 전달은 기술 개념의 세계로부터 처리계(두뇌)에 이르기까지에는 상당한 遲延要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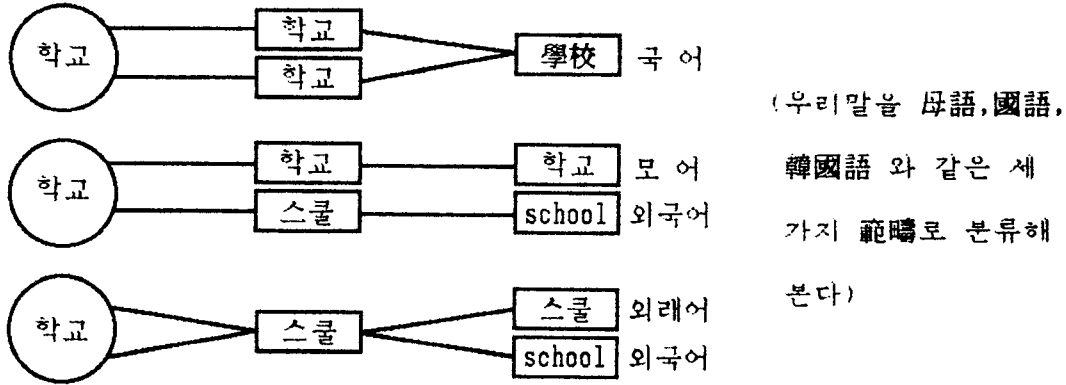
[그림1] 思考의 遲延

즉, [그림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리적인 전달과정을 거치는 매체 지연, 개인의 감각 기관이 이를 수용하는 데 소요되는 감각 지연이 있으며, 그것을 判斷 인지하기 위한 인지 지연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있겠다.

$$\text{사고의 지연} = \Sigma \text{매체 지연} + \Sigma \text{감각 지연} + \Sigma \text{인지 지연}$$

사고 지연이 최소화되면 정보의 전달속도는 고속이다. 따라서, 정보 전달 속도를 물리적인 매체 지연에만 중점을 두워서는 불충분하다. 정보 그 자체는 옮겨질 수는 없으며 다만 그 표상인 언어가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기술적 개념을 보편화 하는 첩경이다. 그러므로, 장구한 세월을 통해 生理化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당연한 일이며, 이런 뜻에서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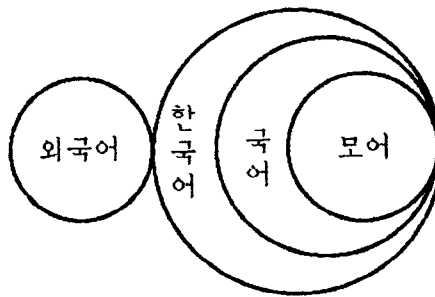
용어의 國語化는 기술을 개발하는 일 만큼이나 중요하다 [1].



[그림2] 語彙의 3 가지 範疇

여기서 말하는 기술 용어의 국어화란 개념의 표상이 語彙 수준, 文章 수준, 意味 수준에서 국어임을 총칭하는 말이다. 어휘 수준에는 세 가지 갈래가 있다. 소리는 다르되 同一의 기호를 복수의 국가가 사용하는 경우, 한 국가에서 독특한 소리를 독특한 기호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소리를 복수의 국가에서 각기 다른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즉, [그림2] 에서와 같이 「학교」는 母語이고, 「school」은 외국어이다. 「스쿨」을 국어로 사용하면 이것은 외래어이다 [2]. 「學校」는 외국에서도 사용하므로 이를 國語라 하자. 이렇게 언어를 분류한다면 [그림3] 과 같은 階層的 구분을 할 수 있겠다.

(우리 고유의 말을 한글로 표기한 것을 母語, 漢字로 표기한 것까지를 國語, 한글로 표기한 외래어의 범위까지를 韓國語로 계층화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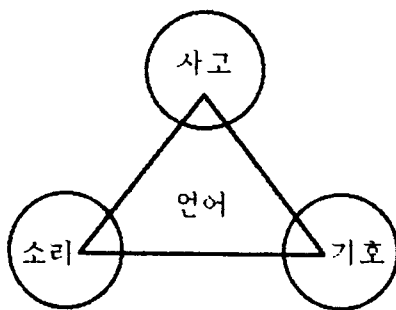
[그림3] 우리말의 階層的 구분

문장 수준이란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수준의 어휘들이 국어 문법의 구문규칙에 맞게 짜여진 문장을 말한다. 의미 수준이란 어휘의 나열이 국어 문법의 구문 규칙에 맞더라도 意味 전달 상의 遲延 要素를 최소화한 알기 쉬운 문장을 말한다.

기술 용어의 국어화란 세 가지 언어 階層에서 사고 지언이 적은 韓國語를 사용하되 母語를 확장하고 외래어를 제한하며, 韓國語에 외국어를 혼합하지 않음을 말한다. 기술 용어를 국어화하는 이유는 사고 지언이 적은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우리의 사고 영역을 지키기위한 것이다. 사고 지언이 적어야만 향후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전국민의 媒體 素養과 電算 素養[4]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 3. 言語의 요소와 知的所有權

언어의 三大 요소는 思考, 소리, 기호이다. 사고가 언어의 원천으로서 소리나 기호를 통해 현실화 된다. 그러나, 이 3자는 상호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사고로부터 소리가 나오고 소리가 기호화되지만 소리나 기호가 사고를 誘發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보로서 취급하는 기호와 소리는 모두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것이 모두 思考의 具現이다.

사고는 공통이나 소리와 기호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

사고의 세계는 커다란 바다와 같다. 누구든지 그 위에 배를 띄울 수 있다. 사고의 공간을 차지함으로써 기술은 싹트며, 그 개념은 소리와 기호라고하는 구체적인 언어

[그림4] 언어의 3 요소 수단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남(외국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答襲한다면 그것은 남의 사고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다.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의 사고 영역을 빼앗는 격이 되므로 여기서 부터 知的 所有權 문제가 대두된다. 사실 근자에 구미 각 국에서 지적 소유권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사고의 한 영역에 대해 일종의 主權을 선포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들은 자기네의 사고 공간을 地理的인 국토나 다름 없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술은 사고에너지에서 창조됨으로 그런 에너지대해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었다고 주장하거나 또 일종의 권리를 선언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고의 세계는 公海와 같은 것인데 이런 경향이 보편화 된다는 것은 생존 경쟁을 위한 싸움과 다를 바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외국어를 남용하거나 외래어를 확장해 나가는 것은 지적 소유권 분쟁의

블키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고를 退化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기술의 창조를 외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우리의 사고 영역을 지키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지적 소유권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母語의 사용을 확대해 나가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 무차별한 외국어의 남용으로 국어의 어휘가 蠶食되어 갈 뿐만 아니라 문장 수준이 파괴되 가고 있으며 또, 의미 수준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지연 요소가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필자의 소견이 필요에 의한 외국어 학습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어 학습과 技術用語를 국어화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이다.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 漢字는 동양권 여러 나라에서 共用하고 있고 중국의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 글이 아니라는 것과 한자의 습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 한자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거나 制限해 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유는 漢字를 국어로 생각하는 이유를 거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한자를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지만 그 발음만큼은 각 국이 다른 것이고, 둘째 한자는 造語 기능이 우수하며 압축된 정보의 표현과 象徴性이 강하기 때문에 學問이나 技術적인 용어를 만드는데 효과적 이고 정보 전달도 때로는 經濟的일 수 있기 때문이며, 셋째 傳統文化의 계승과 수 천년 동안 쌓아온 한자화된 정보의 세계내지 사고의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며, 넷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휘의 상당부분이 한자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打字機 시대가 지나가고 電子化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한자의 처리도 어렵지 않다. 따라서, 기술 용어의 국어화를 위해서

- 모든 기술 용어의 어휘는 母語로 한다.
- 母語로 하기 곤란하거나 능률적이지 못하면 國語로 한다.
- 국어로도 불충분하면 외래어로 한다.

와 같은 원칙은 어휘 수준에서 세워 둘 수 있을 것이다.

#### 4. 몇 가지 事例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술적 개념을 表象함에 있어, 어휘 수준에서 母語또는 國語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외래어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둘째 어휘 외 나열은 생리화된

母語의 구문 규칙에 의해 나열할 것과, 셋째 인지 지연이 최소로 되는 쉬운 문장을 만드는 일이 바로 技術用語의 國語化의 목표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 관련 인쇄물을 보면 기술 용어의 국어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용자로 하여금 많은 불편과 일반인의 인지 지연을 느끼게 하는 사례들이 많은 데 그 중 몇 가지를 보기로 한다.

「 다음 과정은 여러분들이 플로피 드라이브 A 와 B 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본 것입니다. 」

〈 어느 사용자 지침서에서 〉

이 문장이 비록 한글로 表現되 있으나 우리의 사고에 즉각적으로 와 닿지 않는 단는 점에서 국어화가 제대로 되었는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첫째 플로피 드라이브 등은 외래어이고, 둘째 A 와 B 를 가지고 있다고 假定하는 것과 「 다음 과정 」 이라는 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모호하며, 셋째 A 와 B 를 가지고만 있다고 가정만 하면 「 다음 과정 」에는 A 와 B 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등을 잘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문장은

「 납작이 구동장치 A 와 B 를 사용해서 다음 과정을 밟을 수 있다. 」

와 같이 하면 알기 쉬운 것이다. (‘납작이’란 말은 플로피디스크를 필자가 임의로 母語化 해본 것임)

또, 다음 예를 보자.

「 백업을 원할 시에는 임의의 키를 누르면 됩니다. 백업이 자동적으로

시작되고 스크린은 현재 백업이 진행되는 화일의 드라이브 이름과 타겟

디스켓의 연속 번호를 아래와 같이 보여줍니다. 」 〈 어느 지침서에서 〉

위의 문장에서 외래어를 國語로 바꾸고 의미구조를 수정해서 아래와 같이 고쳐 보면 그 뜻을 보다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 임의의 자판을 누르면 전산 장부가 완전 복사된다. 완전 복사가 시작되면

현재 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산 장부의 구동 장치 이름과 목표 납작이

의 연속 번호가 아래와 같이 화면에 나타난다. 」 (여기서 ‘와전복사’란 말은 백업을 필자가 임의로 國語化 해본 것임)

또,

「 그 데이터를 기억하는 데 보다 작은 장소 밖에 필요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은 보다 늦게 움직이게 된다. 」 < 어느 책에서 >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고쳐 본다.

「 그 자료를 기억하는데 보다 작은 장소가 소요되지만 프로그램 실행  
은 보다 느리게 된다. 」

또,

「 사용자에게 따라서는 한자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가 자주 사용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 어느 지침서에서 >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고쳐 본다.

「 경우에 따라서 사용자는 한자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를 골라  
내려고 하는 수가 있다. 」

위에서와 같이 일일이 매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기술 용어와 그 문장들이 국어화 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외국의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사대주의에 젖은 탓이라 볼 수 있겠다. 이런 경향이 深化되면 국어의 장래도 의심스러우며 우리의 사고 세계를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혹자는 국제 표준을 위해 국어화의 필요성을 거부할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강대국의 표준화 정책이라든지 정보 통신의 개방 압력이란 것이 결과적으로 또 다른 식민지 정책으로 흘러 가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3].

## 5. 한글 情報處理와 國語의 將來

한글 정보 처리는 단순히 한글 자모를 기계화한다는 범주에 그쳐서는 안된다. 기술 용어의 국어화를 통해 효과적인 사고 활동을 展開함으로써 우리의 기술과 문화를 창조하는데 밑바탕이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1].

통신과 교류가 활발한 현대 사회에 있어서 한 국가의 동질성은 地理적인 면에 있어서 점차 그 구분을 잃어가고 있는 경향이 짙은 현실적인 상황에서[2] 국어를 보존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국수주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 한 민족이라고 하는 同質性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고의 세계를 정화하고 활성화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고, 지적 소유권과 같은 분쟁을 근원적으로 없애자는 것이고, 앞으로 爭點化되는 국제 표준화 작업에도 우리의 몫을 찾자는 것이다 [3]. 국가 단위는 크지만 통일된 표준언어를 가지지 못한 국가들이 낙후되고 있는 반면, 이와 반대로 국가 단위는 작지만 훌륭한 언어를 가진 국가들의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은 國語라고 하는 정보 전달 수단이 사회를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역사가 잘 증명해주며, 현실도 그렇다.

그러므로, 국제화를 위한 수단으로 외국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이유때문에 국어를 회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제화에 따라 어휘 잠식, 문장 구조와 격의 파괴 등 이제는 우리 국어가 전면 공격을 받고 있는 느낌이 든다. 국어라고 하는 언어 공간은 국토나 다름 바 없는 중요한 개념인 바, 國家의 장래는 바로 국어의 장래와 운명을 같이 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금후의 고도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나아갈 정보처리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기술 용어의 국어화를 주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參考 文獻 ]

1. 李 東翰, 기술 용어의 국어화, 컴퓨터비전, 정보시대(1984), 8월호-12월호
2. 李 東翰, 用語 統一의 問題占과 그 對策, 제 3회 정보 산업 리뷰 (정보 산업 발전 방향에 관한 심포지엄), 한국 정보 과학회(1984), p50
3. 주간 기술 동향, 한국 전자 통신 기술 연구소(1987), 299호 p13-p21
4. 신문.잡지 기사 모음집, 정보 문화 센터(1988), p69
5. Marvin Minsky, *The society of mind*, Simon and schuster, New York(1985), p63
6. 太田久紀, 佛敎의深層心理, 有 閣, 東京(1983), p8; p129